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대한민국 http://www.motie.go.kr

2013년 12월 24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산업피해조사팀 양원창 팀장(02-2110-5561), 최용이 사무관(5565)

무역위, 반덤핑조치 업종 실태점검 결과 발표

- 반덤핑조치 후, 해당 기업 경영지표가 전반적으로 상승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(위원장 홍순직)는 11.4~29일(4주간)에 걸쳐, 반덤핑조치(덤핑방지관세 부과 등)가 진행중인 품목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

○ 점검결과에 따르면, 반덤핑조치 후 해당 기업의 경영지표가 전반적으로 상승*하였으며, 이는 반덤핑조치가 해당 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

* 매출 18.3%, 시장점유율 4.2%p, 가동률 5.8%p, 고용 6.8%, 영업이익률 5.8%p

○ 아울러, 해당 기업이 설비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음

○ 이번 실태점검은 반덤핑조치의 효과 확인을 위해 무역위가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 조사한 것으로, 무역위가 반덤핑조치 전후의 기업 경영지표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

< 실태점검 개요 >

○ (점검팀) 무역위원회 조사관 2~3인 (위원장, 상임위원 실태점검 참여)
○ (일 정) 11.4~29일
○ (대 상) 반덤핑조치 진행중인 11건* (조사기업 : 25개)
* 조치중인 13건중 실태점검 당시 반덤핑조사가 진행중인 2건은 제외

□ 현재, 반덤핑조치 진행건은 총 13건으로,

○ **(품 목)** 철강 3건, 화학 3건, 섬유 2건 등 총 12개 품목으로, 철강 및 화학 부문이 전체의 50% (6건)를 차지

○ **(대상국)** 중국 9건, 일본 4건, 캐나다 3건 등 총 11개 국으로, 중국이 전체 조치건의 69% (9건)를 차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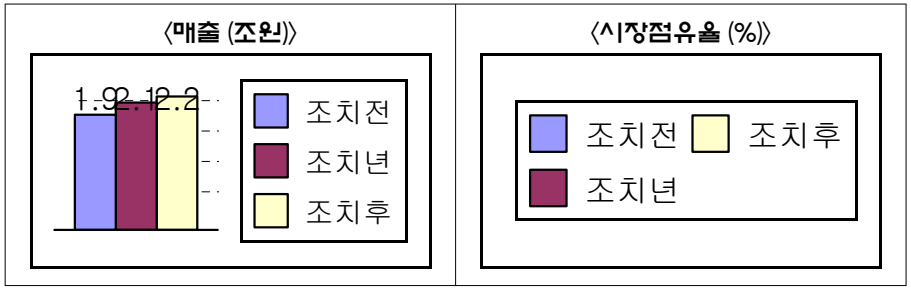
○ **(부과기간)** 원심 3.6년, 재심 2.9년으로 평균 3.3년 부과됨

○ **(시장규모)** 조치 품목의 국내 시장규모는 약 4.1조원으로 국산 점유율은 약 58% (국내 업체수 : 약 48개사) 임

□ 점검 결과, 반덤핑조치 前 대비, 조치 後 해당 기업의 경영지표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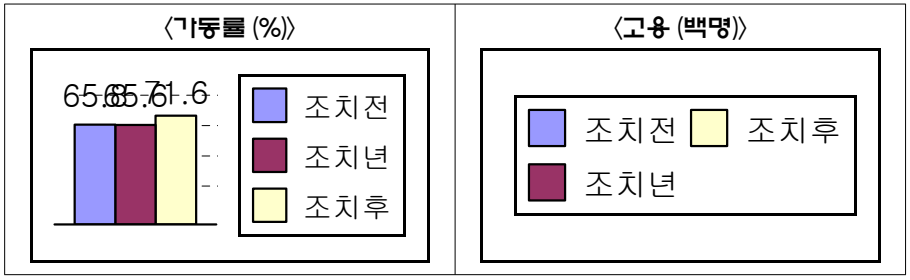
○ **(매 출)** 반덤핑조치 前 총 1.9조원에서, 조치 後 총 2.2조원으로 18.3% (3,387억원) 상승하였음

○ **(시장점유율)** 반덤핑조치 前 약 63.7%에서, 조치 後 약 67.9%로 4.2%p 상승하였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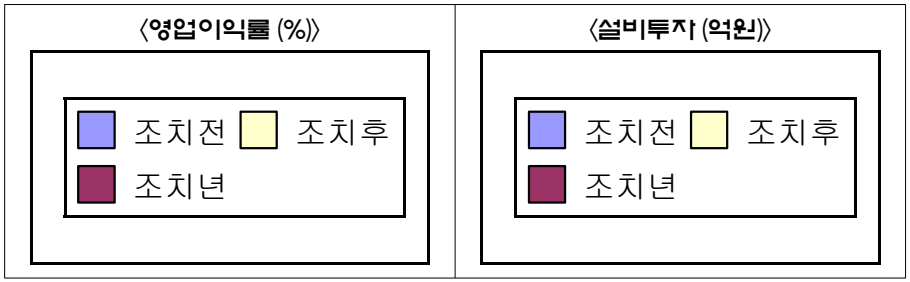
○ **(가동률)** 반덤핑조치 前 약 65.8%에서, 조치 後 약 71.6%로 5.8%p 상승하였음

○ **(고 용)** 반덤핑조치 前 총 3,270명에서, 조치 後 총 3,492명으로 6.8% (222명) 상승하였음



○ **(영업이익률)** 반덤핑조치 前 약 △1.4%에서, 조치 後 약 4.4%로 5.8%p 상승하였음

○ **(설비투자)** 반덤핑조치 前 총 800억원에서, 조치 後 총 877억원으로 9.7% (7,774백만원) 상승하였음



□ 이운호 무역위 상임위원은 "외국기업의 국내시장 공략 수단으로 저가 공세가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, 무역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내시장을 교란하는 덤핑행위를 규제함으로 공정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"이라고 밝히고,

○ "향후, 실태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점검 대상 확대(11개 → 21개)* 및 점검시기 정례화(매년말)를 추진할 계획"이라고 말했음

* 조치 진행 건(11건) 외에 최근 조치 종료된 조사건(최근 5년간, 10건) 까지 확대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피해조사팀 최용이 사무관(02-2110-556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현재 진행중인 반덤핑조치 현황 (13건)

연번	품 목	대상국	신청기업	부과기간	비고
1	합판	말련	선창, 성창, 이건	'11.2~'14.2(3년)	원심
2	스테인 후판	일본	DKC(주)	'11.4~'16.4(5년)	원심
3	플로트판유리	중국	(주)KCC, 한국유리공업(주)	'11.5~'14.5(3년)	재심
4	도자기타일	중국	대동산업, 한보요업, 대보세라믹, 성일요업	'11.7~'14.7(3년)	재심
5	초산에틸	중국, 일본, 싱가폴	한국알콜산업(주)	'12.3~'15.3(3년)	재심
6	크라프트지	미, 중, 러, 인니, 캐나다	쌍용제지, KGP	'12.4~'15.4(3년)	재심
7	PET필름	중국, 인도	코오롱, 도레이, 효성, 화성인더스트리	'12.5~'15.5(3년)	재심
8	POY	대만, 중국	성안합성, TK케미칼	'12.7~'14.7(2년)	재심
9	보틀캡	일본	테크팩솔루션	'13.1~'16.1(3년)	원심
10	염화콜린	미국, 인도, 중국, 캐나다	코린화학, 코파벤	'13.8~'16.8(3년)	재심
11	스테인 스틸바	일본, 인도, 스페인	세아특수강, 동일제강, 포스코특수강	'13.9~'16.9(3년)	재심
12	합판	중국	합판보드협회	'13.10~'16.10(3년)	원심
13	DTY	대만, 중국, 말련	성안합성, TK케미칼	'13.12~'16.12(3년)	재심

※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점검 실시(실태점검 당시 반덤핑조사가 진행중인 중국산 합판건 및 대만, 중국, 말련산 DTY건은 실태점검에서 제외)

참고 2 반덤핑조치 진행건 분석 (13건)

□ **(품 목)** 반덤핑조치가 진행중인 품목은 총 12개 품목

○ 철강 3건, 화학 3건, 목재/종이 2건*, 세라믹 2건, 섬유 2건으로 철강 및 화학 부문이 전체의 50%(6건)를 차지

* 말련산 합판과 중국산 합판 제소건은 합판 품목으로 통합하여 산정

< 반덤핑조치중인 품목 >

구분	철강	화학	목재/종이	세라믹	섬유	계
품목	3건 (후판,스틸바,캔)	3건 (초산,콜린,PET)	2건 (합판,종이)	2건 (유리,타일)	2건 (POY,DTY)	12건

□ **(대상국)** 반덤핑조치가 진행중인 대상국은 총 11개국

○ 중국, 일본 및 캐나다 등 11개 국가에 대하여 반덤핑조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*이 전체 조치건의 69%(9건)**를 차지

* 중국(9건) : 판유리, 타일, 초산에틸, 크라프트지, PET, POY, 콜린, 합판, DTY

** 전체 제소건 13건에서 건별 조치대상국을 중복하여 산정

< 국가별 조치건 >

국가	중국	일본	캐나	미국	인도	대만	말련	러시	싱가	인니	스페	계
건	9	4	3	2	2	2	2	1	1	1	1	13건

□ **(부과기간)** 반덤핑조치 부과기간은 평균 3.3년

○ 원심(3.6년)이 재심(2.9년) 보다 0.7년 길게 부과됨

< 반덤핑 부과기간 >

구분	원 심				재 심				평균
	5년	3년	계	평균	3년	2년	계	평균	
건	4	9	13	3.6년	11	1	12	2.9년	3.3년

□ **(시장규모)** 조치 품목의 국내 시장규모는 약 4조 1천억원* 규모

○ 국내시장에서 국산 점유율은 약 58% (국내업체수 : 약 48개)

* 시장점유율('12년) : 조치대상국 약 14%, 국산 약 58%, 기타국 약 28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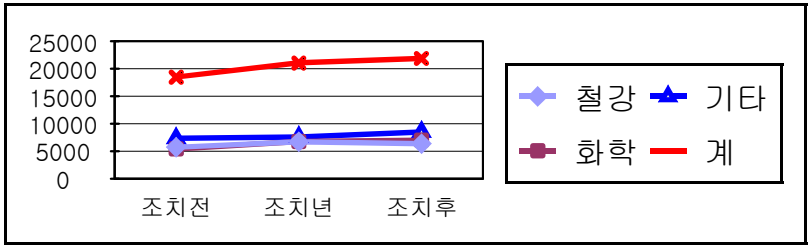
참고 3 반덤핑조치 전후 기업 경영지표 변화 (업종별)

□ **(매출)** 반덤핑조치 前 대비, 조치 後 약 18.3%(3,387억원) 상승

※ 철강 11.3%↑(646억원), 화학 29.5%↑(1,597억원), 기타 15.5%↑(1,145억원)

(단위 : 억원, %)

구 분	조치전	조치년	조치후	조치전대비 증감
철 강	5,723	6,717	6,369	646 (11.3)
화 학	5,419	6,761	7,016	1,597 (29.5)
기 타	7,366	7,601	8,511	1,145 (15.5)
계	18,508	21,079	21,895	3,387 (18.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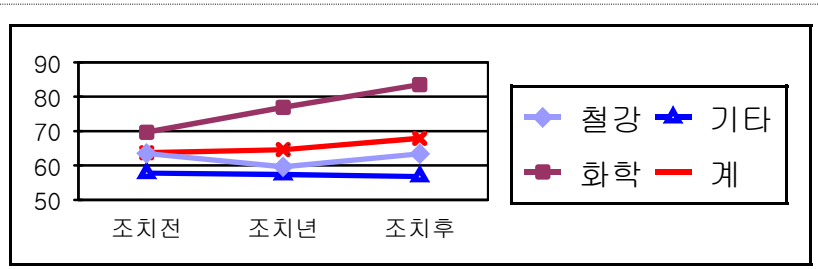


□ **(점유율)** 반덤핑조치 前 대비, 조치 後 약 4.2%p 상승

※ 철강 △0.1%p↓, 화학 13.8%p↑, 기타 △1.0%p↓

(단위 : %, %p)

구 분	조치전	조치년	조치후	조치전대비 증감
철 강	63.5	59.6	63.4	△0.1
화 학	69.7	76.9	83.5	13.8
기 타	57.8	57.4	56.8	△1.0
계	63.7	64.6	67.9	4.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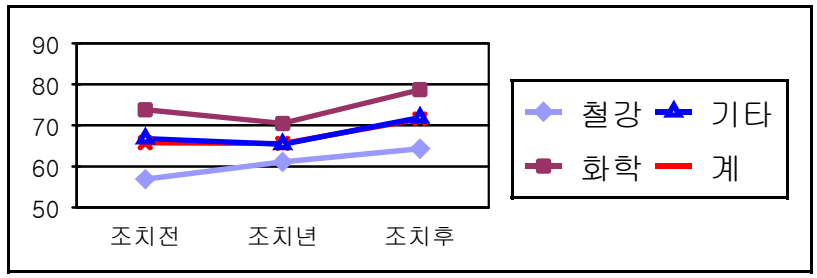


□ **(가동률)** 반덤핑조치 前 대비, 조치 後 약 5.8%p 상승

※ 철강 7.4%p↑, 화학 4.9%p↑, 기타 5.1%p↑

(단위 : %, %p)

구 분	조치전	조치년	조치후	조치전대비 증감
철 강	56.9	61.1	64.3	7.4
화 학	73.8	70.5	78.7	4.9
기 타	66.8	65.4	71.9	5.1
계	65.8	65.6	71.6	5.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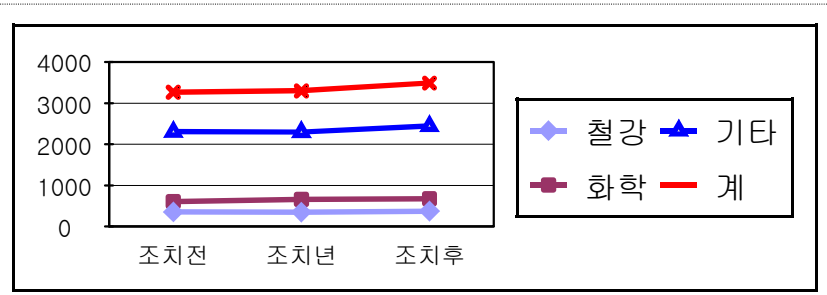


□ **(고용)** 반덤핑조치 前 대비, 조치 後 약 6.8%(222명) 상승

※ 철강 5.4%↑(19명), 화학 10.7%↑(65명), 기타 6.0%↑(139명)

(단위 : 명, %)

구 분	조치전	조치년	조치후	조치전대비 증감
철 강	354	347	373	19 (5.4)
화 학	608	658	673	65 (10.7)
기 타	2,308	2,299	2,447	139 (6.0)
계	3,270	3,304	3,492	222 (6.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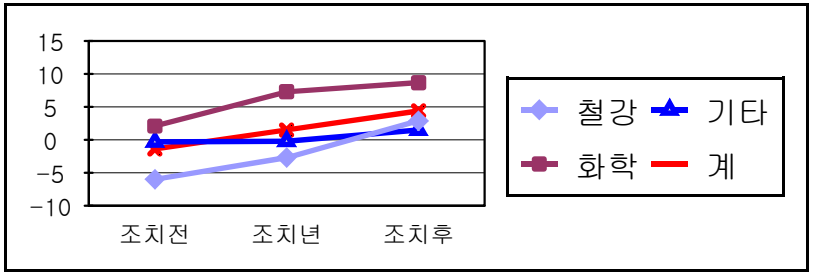


□ **(영업이익률)** 반덤핑조치 前 대비, 조치 後 약 5.8%p 상승

※ 철강 8.9%p↑, 화학 6.6%p↑, 기타 1.8%p↑

(단위 : %, %p)

구 분	조치전	조치년	조치후	조치전대비 증감
철 강	△6.0	△2.7	2.9	8.9
화 학	2.1	7.3	8.7	6.6
기 타	△0.3	△0.2	1.5	1.8
계	△1.4	1.5	4.4	5.8



□ **(설비투자)** 반덤핑조치 前 대비, 조치 後 약 9.7%(7,774백만원) 상승

※ 철강 △41.4%↓(△3,331억), 화학 22.2%↑(14,609억), 기타 △58.3%↓(△3,504억)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조치전	조치년	조치후	조치전대비 증감
철 강	8,042	4,588	4,711	△3,331 (△41.5)
화 학	65,910	23,467	80,519	14,609 (22.2)
기 타	6,009	3,229	2,505	3,504 (△58.3)
계	79,961	31,283	87,735	7,774 (9.7)

